



ERZBISTUM
HAMBURG

2020년 2월 3일
성 안스가리오 주교
대축일을 맞이한
스테판 헤세
대주교님의 사목서한



2020년 2월 3일 성 안스가리오 주교 대축일을 맞이한 스테판 헤세 대주교님의 사목서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 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 찢는 달력에 등장하는 격언처럼 들리는 이 문구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덕목은 ‘손님 접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인 사라가 세 사람의 낯선 손님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손님 접대입니다. 세 사람의 낯선 남자들이 그들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아브라함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만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물을 제공했고, 그들을 위해 신선한 빵을 굽게 했으며,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님 접대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손님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가 없던 부부에게 사라가 내년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그들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커다란 풍요로움이 된 것입니다.

라틴어에서는 그런데 손님과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지 한 단어만 존재합니다. 그 단어는 hospe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님과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서로를

사랑하는 신자여러분!

아브라함의 손님 응대 장면은 우리 헬고란드의 성 미카엘 성당 제대 뒤쪽에서 볼 수 있는 성화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게 되는 바로 그곳에 딱 적당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접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어울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머물고자 하는 손님들이고, 아울러 공동체로써 많은 교회방문자들에게 손님 접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는 헬고란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교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접대는 모든 영역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좋은 태도입니다. 손님 접대는 단지 휴양지들에서 자명한 일일뿐만 아니라 언제 나 또 누구나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님 접대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호텔 손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친절한 저녁방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 접대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는 philoxenie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가 된다는) phileo라는 단어와 (낯선 이를 의미하는) xenos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하여 손님 접대라는 단어는 낯선 이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낯선 이와 맺게 되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손님 접대는 낯선 이를 향한 사랑과 우정 안에서 새로운 이, 마주하는 이를 기꺼운 마음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건설된 호텔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대략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손님 접대는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호스피스스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시대를 이어오면서 수도원들은 손님 접대의 장소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님 접대의 생명을 구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활동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손님을 맞이하는 좋은 사람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또한 존재하고 있는 낯선 이를 향한 적개심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손님 접대는 우리 교회의 한계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는 단지 하나의 선포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내용은 그 형태로부터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로 손님 접대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 곁에 손님이셨다는 사실은 대충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계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사람들을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셨고, 자신의 삶으로 당기셨습니다: “와서 보시오!”

저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손님 접대에 대한 생각을 더 이어나가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떠올랐습니다.

1.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서 손님들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장례성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서 손님들입니다.” 이 가사는 우리의 독일 역사상 가장 암흑기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사회주의 시절 작사자는 우리의 최종적인 고향은 하느님 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천상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여기와 지금, 이 세상과의 교류, 또한 우리 전체 삶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삶을 가볍게 하고 해결해 주며, 그리고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지고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고 물려주어야 할 창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서 손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손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늘 당신 가까이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그분의 손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상적 초대를 늘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아시길 바라시고, 우리는 그분께 귀 기울일 수 있으며 미사에서 그분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 곁에 침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유효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 안에서 손님 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자캐오라는 세관원의 삶에서, 혹은 베타니아의 마르타 곁에서 손님 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려진 식사 전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의 손님 이소서!”
3. 우리 교회공동체는 수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교회공동체는 수많은 이벤트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도시들과 사회공동체와 함께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과 활동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님이 될 때 수많은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이러한 요청들에 함께하기를 약속하고 동참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4. 아울러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들과 교회적 삶을 위한 모든 곳에서 좋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님들, 방문객들, 그리고 모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비교, 사목적 방향 제시 2,5).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적은 혹은 아무도 손님들을 볼 수 없게 될 때, 혹시 그들 스스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속고나 마음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손님들에 의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 안에 손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손님 접대는 끊임없이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손님 접대는 다른 이에게, 그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종한 윈스터 신학자 요한 바티스트 메츠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자신의 고유함 안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를 자신의 개성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야 합니다. 비록 그 개성이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변화로 이끈다 하여도. 왜냐하면 삶의 신비는 자기애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호 관계에 연결되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써 함부르크 대교구 안에서 진정으로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호소에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고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우리와 함께 손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대교구장 스테파노 주교



ERZBISTUM
HAMBURG

Erzbistum Hamburg
Am Mariendom 4
20099 Hamburg
www.erzbistum-hamburg.de